

비영리공익법인이 된 연구회의 비전

장영탁

운영이사

사람과 사람이 모이면 조직을 이룬다. 사람은 조직의 구성원이자 사회의 구성원이다. 조직은 성과와 목표를 지향하는 시스템이자 에너지이다. 영리조직인 기업은 경영으로 정부는 행정으로 그 실적과 성과를 나타낸다. 비영리조직(Non-Profits Organization)은 기업과 정부와는 성격이 다른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인 결핍의 보완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비영리조직은 자본과 인적 자원, 회원과 후원자 확보 등 모든 경영자원을 스스로 조달하여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면서 미래비전을 지향해 나가야 하는 자급자족 경영을 필요로 한다. 기업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분야이지만 민법과 소속 정부기관의 설립과 운영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을 받는다.

비영리공익조직 경영(Management)은 흔히 오케스트라에 비유되기도 한다. 지휘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연주자 집단에 의한 공연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많은 청중에게 다가가는 성공적인 연주의 결과가 곧 공익적인 성과물이라는 것이다. 우리 연구회의 조직과 운영·활동도 이와 유사하다. 단위 위원회는 전문성을 지니고 활동과 실천으로 주어진 사명을 다해 나가는 생동감과 생산성이 미래조직으로 가는 길이다.

조직은 주어진 목적을 지향한다. 이집트가 피라미드(pyramid)를 완성한 것도 신권의 권위를 지닌 군주 파라오(Pharaoh)가 수상(vizier)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추진한 목적지향의 사례이다.

최근 산림의 공익가치에 기여하고 있는 산주(山主)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을 위한 ‘산림보호법’이 지난 4월 23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연장선에서 숲과문화연구회는 산림청 허가를 득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2023년에는 세법상 공익법인의 지위를 득한, 산림청의 공익가치 평가 밖의 역할이긴 하지만 ‘숲과 문화’를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느끼고 스며들게 한 축적된 연구실적과 노력은 결코 부인될 수 없다.

우리 연구회의 지난날은 학계와 행정에서 우뚝하신 전영우, 김기원, 이천용, 박봉우 역대 회장의 헌신적인 봉사에 의해 숲 관련 연구 활동, 학술도서의 발간, 산림문화전집 발간, 위탁사업인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 그리고 자체 보수교육 차원의 산림치유요육, 숲해설요육 발간 등 비영리단체로 고유한 활동을 해 오면서 오늘까지 그 업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 임주훈 회장은 그간의 비영리단체에 세법상 공익법인 자격을 추가하여 이덕근 회원으로 부터 1억 원의 기부금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연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해 최병암, 남성현 전직 산림청장을 고문으로 위촉하였으며, 정은주, 윤태경, 노남진 교수를 영입하여 조직을 강화한 사실도 돋보인다.

이렇게 뿌리 깊은 역량을 가진 단체가 오늘을 넘어 미래비전을 이어가게 하는 데는 산림청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정보 등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명확히 하고 있다.

비영리공익조직도 자원 부족으로 실패를 할 수 있다. 실패의 경우 사람의 생명과 다른 점은 모든 잔여 자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되는 절차로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법제화하고 있다.

비영리공익사단법인의 성공신화는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이 크나큰 동력이다. AI 시대라고 해도 사명과 공동체 정신을 같이하는 인적 자원이 중요한 자원이다.

산림을 근간으로 하는 역할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매력적인 분야이다. 피로한 사회 숲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로 사람을 치유하고 공익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는 플랫폼의 역할도 우리 미래 비전이다.

다문화와 AGI 시대에 순수 민간단체로 사회의 선(善)한 가치를 추구하고,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공공의 편익에 기여하고 있는 비영리공익단체인 (사)숲과문화연구회의 사명과 비전이 우리나라 산림행정, 산림교육과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에 풍성한 에너지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